심청가 한 대목으로 울분 씻어내니 "온 세상이 환해지드라"

광주전남작가회의 100여 회원
윤 파면 후 판소리 들으며 환호
작가회의 소감문 담은 책 발간키로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원 등 지역 문인들이 지난 4일 5·18민주광장에 모여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광주전남작가회의 제공〉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있던 지난 4일 광주 5·18민주광장. 여수작가회의 지부 회원인 성미영 시인이 파면을 기념하는 소리 한 대목을 시원하게 뽑았다.

이날 성 시인이 선사한 판소리 한 대목은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장면'으로, 헌재의 파면 결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어서 청이를 보옵소서~"

"청이라니, 이게 웬 말이냐.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제,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내 딸 좀 보자. 아이고~ 갑갑하여라~"

광주전남작가회(회장 김미승)의 회원들은 지난달 31일부터 5·18민주광장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릴레이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마침내 파면 선고가 있던 4일, 작가은 광장에 모여 성미영 시인이 토해내는 심청가 한 대목을 들으며 그동안의 울분과 분노를 씻어냈다.

그동안 릴레이 천막농성은 목포작가회의, 순천작가회의, 여수작가회의 등 지역 작가회의 회원들도 참여했다. 한목소리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한 것은 문학은 결코 불의와 부조리에 대해 침묵할 수 없다는 비장한 결의로 읽혔다.

심 봉사가 눈 뜨기 직전, 민주광장에서 힘찬 소리들이 울려 퍼진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이렇듯 문인들은 격동의 역사 현장에서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번 파면 촉구 릴레이 천막농성에는 100여 명 가까운 회원들이 참여해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작업실에서 나와 잠시 창작을 멈추고 시민들과 한목소리로 파면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인 것은 이번에도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작가회의는 이번 릴레이 천막농성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참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소감문을 받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조만간 작가회의 차원에서 책을 발간하기로 한 것.

성미영 시인의 판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웠던 김현주 작가는 "심봉사가 죽을힘을 다해 눈을 꿈적꿈적꿈적꿈적하더니만, 눈을 딱 떴다! 그 덕분에, 온 나라 맹인들도 개평으로 눈을 떴다"며 "자다 깨다 뜨고, 울고 웃다 뜨고, 먹다 뜨고, 싸다 뜨고, 일시에 모두 떴다. 심봉사 눈을 막 뜨니 온 세상이 희뿌옇등마는, 눈 비비고 보니 온 세상이 점점 환해지드라"고 감격을 표현했다.

순천작가회의 정성권 작가는 처칠의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라는 명언을 인용해 소감을 피력했다.

정 작가는 "대선 때 국민을 상대로 법과 원칙, 공정의 상징인 것처럼 속여 대통령에 당선된 그를 보고 있노라면 울화통이 터졌다"며 "한시라도 빨리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것만이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여수작가회의 이정훈 작가는 "지난 12월 3일 이후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는 작가들이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다. 편두통, 소화불량, 집중력 저하, 무력감 따위가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전 국민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헤아릴 수 없는 시간적·물질적 손실 등이 대한민국을 황폐화하고 있다"며 "봄 햇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4월의 정오, 광주 5·18민주광장 차도 옆에서 '내란세력 청산 하자'란 대형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작가들의 표정이 자못 비장하기 그지없다"고 소감을 표현했다.

광주전남소설가협회(회장 이진)도 조만간 광주 5월이 문학적 대응의 보루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소설가 책임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그동안 시위, 천막농성 등을 통해 문인들도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이진 회장은 "개인적, 연합적 방식으로 이어온 투쟁의 시간을 마련할 것이다"라며 "소설이 작가 개인을 넘어 시대의 아픔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더욱 우리 스스로를 키우고 사회적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며 "5월 광주정신의 힘이 이토록 크다는 걸 새삼 느꼈고 그 5월이 있었기에 다시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양화 대상 이주영 작 '작업'

장관상 김서영 작 '오늘도 영원히 내일에게'

한국화 '오늘도 영원히 내일에게'

문인화 부문 대상 문연봉 '만다라'

'무등미술대전' 문체부장관상에 김서영 작가

최근 막을 내린 제41회 무등미술대전에서 김서영 작가의 한국화 '오늘도 영원히 내일에게'가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회장 김중채)는 최근 광주비엔날레관에서 제41회 무등미술대전 심사를 열고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상은 문인화 부문 문연봉 작가의 '만다라', 서양화 부문 이주영 작가의 '작업'이, 수채화 부문은 채호산 작가의 '섬마을'이 선정됐다. 또한 조각 부문 배서현 작가의 '여름을 회상하며', 공예 부문 이준범 작가의 '옻칠금박 진사항아리', 서예(한문) 부문 강용우 작가의 '이백 선생 시', 멋글씨 부문 이재권 작가의 '독도', 사진 부문 정나겸 작가의 '사람들'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체 입상자 수는 문화체육부장관상 1점을 비롯해 대상 8점, 우수상 26점, 특선 364 점, 입선 697점 등 총 1096점으로 집계됐다. 판화부문은 대상작품을 선정하지 않았다.

이번 미술대전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1944점이 출품됐으며 지난해보다 129점이 증가했다. 지난 39회(2071점) 대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출품수를 기록했다. 특히 3월 접수로 학생들 작품 준비 기간이 짧은 것을 감안하면 이번 대전에 관심과 열의가 그만큼 뜨거웠다는 것을 방증한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남규 작가는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은 현대적인 경향을 확연히 보여줘 국제 경쟁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는 독특한 기량들을 갖추고 있었다"며 "수묵, 산수화, 채색화, 비구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 되었고 작품 수준 또한 수작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무등미술대전은 지난 1985년 지방미술문화의 향상발전과 전국 미술인의 등용문을 기치로 시작됐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으며 전국의 신인 미술인들의 등용문 역할을 충실히 해 오고 있다.

◇부문별 우수상 수상자 명단

▲**한국화**=노승희 '희망가', 김소현 '잠시만요…!' ▲**문인화**=최부이 '홍매', 손영경 '어해도' ▲**서양화**=김은영 '환희', 서효림 '포획된 낙원', ▲**수채화**=김경옥 '앙코르', 권혜경 '해녀와 바다' ▲**판화**=이은미 '시간의 이중성', 김상진 '나빌레라' ▲**조각**=이정아 '부식되는 심야' ▲**공예(금속)**=홍영신 '백동교칠연죽', 공예(목칠) 배상만 '구절초 봉채함', 공예(서각) 최성현 '화덕', 공예(섬유) 차준용 'fantasy 2', 이정희 '회상' ▲**서예(한글)**=문계님 '김남조의 설일' ▲**서예(한문)**=김서정 '석주선생시', 서예(현대) 김가희 '아따 참말로', ▲**멋글씨**=이주희 '닉화', 손숙 '황혼까지 아름다운 사랑' ▲**사진**=정재준 '나한사', 김현 '무', 김대수 '어촌일기', 조희숙 '아침기도', 김경애 '전통체험'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해 어린이 창작 실험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ACC 어린이문화원 옥상정원에서 자연을 활용한 작품을 만들어보고 있다. 〈ACC재단 제공〉

직접 만들고 실험 '어린이 창작 실험실' 함께해요

ACC재단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6월29일까지 오감자극 13개 교육

로봇과 함께 하는 운동회, AI를 통한 동화 여행…. 직접 뛰고 만지고 그리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창작 프로그램이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선옥·ACC재단)은 6일부터 6월 29일까지 3개월간 '2025 어린이 창작 실험실 상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린이 창작 실험실은 아시아 문화와 예술을 소재로 한 다양한 놀이와 창작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문화 감수성과 창의성을 높인다. 총 13개의 교육으로 구성돼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 프로그램은 오감을 자극하고 가족과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자기 주도적 활동이 마련됐다.

우선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아이들과 부모를 대상으로 '축하해, 너와 나의 첫 스텝을-우리는 1학년'이 진행된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첫걸음을 내딛는 설렘을 춤으로 표현하는 시간이다.

이밖에 6~9세 아이와 부모가 함께 미술과 몸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내 손을 잡아줘'와 어린이 가족 창작 라운지 '뒹굴 뎅굴 또로록 소망 연구소' 등 가족이 협력해 작품을 창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문화 감수성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큐브로이드 코딩 블록을 활용해 자신만의 로봇을 조립하고 로봇운동회에 참가하는 체험이 준비되며, 생성형 AI를 활용해 나만의 동화를 만들어보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강의별로 유·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ACC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특히 올해는 현대어린이책미술관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어린이와 가족, 예술가가 함께 기발한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예술로 소통하며 상상 가득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공예미술관 보임쉔 지역작가 지원한다

'공예로…' 11일까지 3명 모집

지역 미술관이 지역 문화예술의 기반을 넓히고자, 작가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담양의 공예미술관 보임쉔(관장 김현정)은 전남도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2025 창작공간지원사업 '공예로 같이-가치'에 참여할 작가 3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11일까지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공예 작가뿐만 아니라 디자인 전공 작가도 함께 모집한다. 서로 다른 분야의 작가들은 한 공간에서 작업하며 자연스럽게 예술적 교류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예미술관은 선정된 작가에게 창작 공간은 물론, 제작비와 개인전 개최, 시제품 제작 등 창작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문가 멘토링과 지역 주민과의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예술과 지역이 소통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참여 작가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작품 전시부터 시제품 개발, 시장 진출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며 예술가로서의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예미술관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현정 공예미술관 보임쉔 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창작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예술가의 성장과 자립을 도울 것"이라며 "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창작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고, 자신의 작품을 사회와 연결하는 경험을 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

한국민속촌 내 전시 중인 '소쿠리'의 공예품. 〈광주디자인진흥원 제공〉

지역 전통 공예품, 한국민속촌에서 본다

원목 소품 제작공방 '소쿠리' 작품 상설 전시

지역을 기반으로 전통 공예품이 한국민속촌에 입점해 눈길을 끈다.

최근 광주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원목 소품 제작 공방 '소쿠리'(대표 정해인)가 한국민속촌에 입점했다. 이번 소쿠리의 민속촌 입점은 광주디자인진흥원의 공예문화 육성 등이 결합돼 이룬 결실이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소쿠리는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명품 공예를 선보여 왔다. 국내산 참죽(까죽) 나무를 활용 자연스러운 나뭇결, 정교한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2년간 '메종&오브제 파리' 전시회에 참가하며 독창적인 공예품을 제작해왔다.

소쿠리 제작 공예품은 민속촌 공간에서 상설 전시될 예정이다.

소쿠리 정해인 대표는 "한국민속촌 입점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제품을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통과 자연의 가치를 담은 공예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광주디자인진흥원 신호상 팀장은 "소쿠리의 민속촌 입점은 지역 전통 공예품의 가치 등이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올해도 메종&오브제 파리 전시참가 신청을 오는 4월 1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니 관심있는 업체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